



2020년 1월 5일(제963호) 주님 공현 대축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두 가지 놀라움”

주님 공현 대축일은 또 하나의 성탄 대축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성탄의 사건은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납니다. 즉, 공현(公現) 됩니다. 그 성탄의 소식을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1.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마태 2,3)

헤로데의 놀라움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임금이 되실 분이 탄생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이미 누리고 있는 권력이 위협받을 것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헤로데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 베들레헬과 그 온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이기까지 합니다.

2.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마태 2,10)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는 별을 기쁘게 따라갔고, 그 별이 멈춘 곳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현존을 보고서 두 가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헤로데의 놀라움과 동방 박사들의 놀라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놀라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헤로데의 것은 두려움이었고, 동방 박사들의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헤로데의 것은 자기 몫을 지키려는 고집이었고, 동방 박사들의 것은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놓는 봉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공현’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세주의 탄생 앞에서 어떤 놀라움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분의 현존은 우리의 삶을 ‘봉헌’으로 초대합니다.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결핍된 가난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가 각자 가진 것을 내어놓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 하고 있습니다.

헤로데의 고집처럼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의 봉헌처럼 따뜻함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차가운 구유 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따뜻한 봉헌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성탄을 다시 한번 더 기뻐하며, 동방 박사의 봉헌을 살아갑시다.



성주병(리지로) 신부
소성(17시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60,1-6

회 답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 2 독 시

에페 3,2.3-5-6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 음

마태 2,1-12

영 성 제 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이조이 막달레나



성인명: 이조이 막달레나 (李召史 Magdalene)

신분: 과부, 순교자

활동연도: 1808-1840년

이조이(李召史) 막달레나(Magdalene)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장성한 뒤에 그녀는 금산 고을에 살던 김성서 프란치스코의 아우와 혼인을 하였으나, 19세 때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죽기에 앞서 그녀에게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도록 당부하였다.

남편이 사망한 뒤부터 이 막달레나는 오로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시부모에 대한 효도에만 전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기보다는, 천주께서 비교적 덕을 닦기 쉬운 처지에 있게 하신 것을 자주 감사하였다. 그녀는 비록 가난하였지만 자발적으로 대재와 소재를 지키면서 극기를 실천하였으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힘썼고, 무엇보다도 무식한 이들을 가르치는 귀찮은 일까지도 기꺼이 맡았다.

1839년 기해박해 때에 이 막달레나는, 전라도 광주에 있던 홍재영 프로타시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교우들과 같이 체포되었다. 이내 전주로 압송된 그녀는 문초를 받는 동안 과감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고, 갖가지 형벌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 옥으로 돌아온 뒤 이 막달레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함께 있는 신자들이 끝까지 신앙을 증언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데에만 마음을 썼다. 그녀는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무엇보다 천주님과 더불어 솔직하게 행동합시다. 그분에게 충실하여 모두 함께 천국에 올라갑시다. 하나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이어 감사 앞으로 끌려가 형벌을 당하는 중에도 이조이 막달레나는 한결같이 굳센 마음을 나타냈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40년 1월 4일(음력 1839년 11월 30일)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32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은하를 보며

저 고운 은하를 보며, 님을 떠올립니다.	나의 님을 담습니다. 그렇게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저 고운 은하를 내 마음에 담습니다.	



상화이야기

동방박사의 경배



휴고 핀 데이 구스, 1470년경 제작
 패널 위 유화, 150x247cm / 베를린 시립 미술관, 독일

새하얗게 눈부신 백옥같은 피부가 반짝이고 미끄러질 정도로 빛나는 성모님의 무릎에 작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다. 이 그림에서는 아직 신생아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성모님이 예수님의 왼손을 받치고 계신 점이 더욱 사실적으로 다가온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은 화려하고 값비싼 의복을 입고, 각기 다른 인종과 연령대로 그려지는데, 이것은 전 세계가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지상의 왕인 박사는 자신의 왕관을 땅에 내려놓고 진지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나, 정작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쳐다보고 계신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인물들 하나하나가 묵직하고 깊이 있는 인격체로 그려져 있으며, 인물들의 의복의 주름, 빛을 통과하는 손 표현 등을 통해서 화가의 세밀한 묘사와 관찰이 엿보인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주님 공현 대축일: 장상 최재권 신부

◆ 교구장 동정

- 2020년 사제 피정

때·곳: 1월 6일(월)~10일(금), 제천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 2020년 제3회 교구청년대회

- 일정: 2020년 2월 17일(월)~21일(금)

- 대상: 교구 내 20세~35세 청년

(군 가족, 현역 병사 및 간부)

- 장소: 제주도 성지순례

- 참가비: 15만원

- 문의: 군중교구 교육국(02-749-1921, 내선 4번)

- 카카오톡: 천주교 군중교구청 교육국(@miledu)

◆ 군중부원회 신년미사

때·곳: 1월 6일(월) 15:00,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2020년 제62차 국제군인 상지순례대회

- 일시: 2020년 5월 7일(목)~19일(화)

- 장소: 폴란드, 체코, 프랑스

- 대상: 군중신부, 군인신자, 예비역, 군가족

- 참가비: 370만원(총 410만원, 교구지원 40만원)

- 신청마감: 2020년 2월 3일(월)

- 자세한 사항은 교구 공문(천군교 1920 - 31) 참조

- 문의: 군중교구 사무국(02-749-1921, 내선 2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후를 따라” -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21,19)